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합동 브리핑(45차)

금일 주요 브리핑 내용

- 대구·경북 여행 도민 1명 ‘모두 음성’
- ‘코로나19 사태 50일의 기록’ 감염병 차단 총력전
-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방역 지원활동 강화
- 휴원 학원·교습소,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숨통’
- 제주지역 감염병 대응 전문 의료인프라 대폭 확충
- 공직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솔선수범

2020. 3. 17.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20.3.17. 일일 통계 브리핑

□ 국내 발생현황 [‘20.3.17. 0시 기준]

○ (제주) 확진환자 4명 (격리해제 2명, 격리 중 2명)

구분 (단위: 명)	총계	확진환자				유증상자			자가 격리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음성	
제주	1,771	4	2	2	0	1,767	41	1,726	50
일일 증감	+57	0	0	0	0	+57	+10	+47	0
전국	286,716	8,320	1,401	6,838	81	278,396	17,291	261,105	X

□ 입도객 현황 [‘20.3.16. 기준, 잠정치]

○ 총 입도객: 16,592명 (작년 같은 날 대비 △58.6%, 전일 대비 +4.1%)

구분(단위: 명)	총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중국	일본	기 타	
일계	2020년	16,592	16,513	79	9	0	70
	2019년	40,036	35,791	4,245	2,566	287	1,392
	증감률	△58.6%	△53.9%	△98.1%	△99.6%	△100%	△95.0%
누계 (2.23.~)	2020년	366,679	360,833	5,846	416	589	4,841
	2019년	815,547	725,647	89,900	51,196	5,372	33,330
	증감률	△55.0%	△50.3%	△93.5%	△99.2%	△89.0%	△85.5%

○ 대구·경북지역 입도객 현황

- 대구-제주 항공노선(2편): (도착) 360명 (출발) 367명
- 대구·경북지역 출신학생 입도: 3명 (2.6. 이후 누계 : 180명)

□ 공항만 발열감지 운영현황[‘20.3.16. 기준]

구분 (단위: 명)	열감지자 총계	재측정 후 귀가 (37.5°C이하)	문진상담(37.5°C이상)		
			소계	진료상담 후 귀가조치 (의심증상 無)	선별진료소 이송 (의심증상 有)
일계	28	26	2	1	1
누계(2.3~)	1,679	1,564	115	89	26*

* 이송대상자 26명 중 17명 단순발열로 귀가, 9명 검사(음성8, 검사 중1)

□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20.3.16. 기준]

구분(단위: 명)	총계	제주도민	타 지역 주민(제주 체류)
일계	1	1	0
누계(3.7.~)	49	47	2

  제주특별자치도 <small>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mall>		2020. 3. 17.(화)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보도자료 PRESS RELEASE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710-3800
		통제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10-2800
동영상 (웹하드):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사진: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후속자료: 있음

대구·경북 여행 도민 1명 '모두 음성'

- 대구·경북지역 방문 도민 47명·체류객 2명 등 총 49명 검사 진행 -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구·경북지역을 여행한 도민 1명에 대해 16일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16일 도민 1명에 대한 검사가 추가로 이뤄지면서 대구·경북지역 긴급지원 대책(3월 5일) 이후 검사 인원은 17일 오전 10시 기준 총 49명(도민 46, 대구·경북 거주 2)이다. 이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 16일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3명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지난 2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도한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은 총 180명으로 파악됐다.
 - 이 중 107명이 최대잠복기 14일을 경과했다. 나머지 73명은 자체격리 기숙사 등에서 각 대학의 모니터링 아래 자율 관리를 받고 있다.
 - 16일 대구↔제주노선 항공편 도착 탑승객은 360명, 출발 탑승객은 367명으로 하루 평균 편도 탑승객은 평시 수준인 300

여 명을 유지하고 있다.

- 대구↔제주노선 출발 전과 도착 후 승무원과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발열 검사에서도 17일 오전 현재까지 특이 사항이 없는 상태다.

대구 경북지역 긴급지원 대상

(검사당일 기준 14일 이내 대구, 경북 방문이력이 있는 무증상자)

- 1순위 : 주민등록상 주소가 2월21일 이전 제주도민으로 되어 있는자
(*2월 21일 기준은 우리도 첫번째 대구 관련 확진자 발생)
- 2순위 : 제주도 주소를 갖지 않은 자(도외)로 대구, 경북 방문이력이 있는자 중
1주일 이상 체류자(체류기간 증명확인 항공권, 영수증 등 확인 전제)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공항공정지원단 공항공정지원과 한영식 총괄지원팀장 064) 710-4841
기획조정실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064) 710-8820

[붙임] 대구·경북 입도자 관련 통계

□ **대구-제주 항공노선 탑승객 현황 [‘20.3.16. 기준, 잠정치]**

제주국제공항 대구-제주 간 항공기 운항 제주출발 및 입도 현황 (단위: 명)									
	3/8	3/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제주 출발	374	355	312	303	358	351	323	354	367
제주 도착	219	295	364	369	368	338	337	291	360

※ 출 · 도착 2회 발열체크, 도착 시 이동경로 구분, 이동경로 1일 2회 방역

□ **대구 · 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20.3.16. 기준]**

대구 · 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 (단위: 명)									
	누계 (3/7~)	3/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계	49	15	3	2	0	5	1	1	1
도민	47	15	3	2	0	5	1	1	1
제주 체류객	2	0	0	0	0	0	0	0	0

□ **대구 · 경북 출신 학생 입도현황 [‘20.3.16. 기준, 잠정치]**

대구 · 경북 출신 학생 입도현황 (단위: 명)									
계	자율격리 해제 (2/6~3/2)	14일 미경과 소계	14일미경과 (3/3~3/16)						
			3/3-3/11	3/12	3/13	3/14	3/15	3/16	
180	107	73*	24	7	17	15	7	3	

* 대학별 학생관리: 73명(제주대(격리기숙사40, 자가 등 24) 관광대(자가1), 한라대(대학 자체숙소 6, 자가 2))

□ **공 · 항만 발열감지 현황 [‘20.3.16. 기준]**

공 · 항만 발열감지 현황 (단위: 명)									
	3/8	3/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열감지자	25	44	31	15	27	42	33	38	28*
누계(2/3~)	1,421	1,465	1,496	1,511	1,538	1,580	1,613	1,651	1,679

* 대구발 비행기 탑승객 중 1명 발열감지 후 체온 측정 시 발열 증상 없어 귀가조치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 50일의 기록

도민안전 최우선 선제적 대응…감염병 차단 총력전

- 1월 27일 원희룡 지사 본부장 체제 비상대책본부 출범… 도민 자발적 방역 참여 -
- 첫 번째 확진자 발생 후 지역확산 차단 집중… 집단감염 방지 고강도 방역 추진 -

-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벌여온 지 16일로 50일째였다.
-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가 본부장을 맡아 직접 지휘하는 비상대책본부가 출범한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50일간의 대응 상황 및 방역 현장기록을 공개했다. <표 참조>
- 그동안 제주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
 - 특히,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보다 한층 더 강화한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감염병 유입 차단에 총력 대응했다.
 - 1월 27일 제주도는 국제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해 정부의 대응(위기경보 ‘경계’ 단계)과는 별도로 심각 단계 수준의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 이와 함께 도지사가 직접 지휘하는 비상대책본부의 운영을 본격화하면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총력전을 시작했다.
- 이후 제주도는 도내에서 확진자가 발생으로 지역감염 위험 요소가 증가하자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 2월 21일 도내 첫 확진자(139번, 대구방문)가 나타난 직후 코로나

19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 2월 22일 도내에서 두 번째 확진자(222번)가 발생하고, 2월 23일 정부가 감염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자 제주도는 비상방역체계를 발동시켰다.
 - 도내 확진자 4명이 대구에서 제주로 입도한 공통점이 확인된 후에는 대구·경북지역에서 들어오는 도민과 입도객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코로나 진단검사 등)하는 등 선제적 관리에 나섰다.
 - 중국발 코로나 유입 차단을 위해 중국인 유학생 입도 특별수송계획을 수립해 지역 내 감염병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 특히,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과 항만을 통한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자체적으로 공항 내 국제선·국내선 도착장과 항만에 발열감지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 국경과 경계 없는 감염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 제주도는 외국으로부터의 지역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정부에 ‘제주 무사증 제도 일시중지’를 건의하고 반영시켰다. 무사증제도 일시중지는 18년 만에 처음이다.
-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명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감염병 확산 차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 이 밖에도 ▲공·항만 출·도착장 대상 발열검사 체계 구축 ▲동선 파악 시 휴대전화 등 민간 빅데이터 활용 방안 ▲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 ▲확진자 동선 공개 권한 위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을 정부 건의했다.

□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우선, 제주도는 도내 전문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의료기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 코로나19 검체채취기관을 기존 7개소에서 총 13개소로 확대하고, 검체검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수용력을 높였다.

- 다수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소개령을 내려 370병상을 사전 확보했다.

- 감염병관리기관과 국민안심병원 등을 지정해 환자 치료와 건강 상태에 맞춘 응급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 도민 한 분 한 분이 방역 주체가 되어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촘촘한 방역망이 구축되고 있다.

○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범도민적인 방역소독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 2월 5일부터 지역사회 민간단체들의 자발적 범도민 운동인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가 시작되면서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 특히, 3월 13일에는 소규모 집단시설 등이 참여하는 ‘일제 방역소독의 날’이 처음으로 운영됐다. 일제 방역소독의 날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매주 금요일 운영된다.

□ 제주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방역 관련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정보를 제공하면서 도민 불안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 대표적 사례로 제주도는 지난 2월 1일 제주 여행 후 귀국한

중국인 관광객이 확정 판정을 받았다는 국토부 제주항공청의 통보를 받은 직후 접촉자와 동선 파악과 후속 조치에 나섰다.

- 당시에는 정부의 지침과는 별도로 진행한 것으로,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 잠복기에도 질병 전파가 가능할 수 있다는 독일 사례를 참고한 선제적 조치였다.

○ 또 신천지 신도·교육생 명단을 확보한 즉시 밤샘 조사에 돌입해 이튿날 오전까지 후속 대책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히 대응했다.

○ 이 밖에도 1월 29일부터 대도민 통합 브리핑제를 진행하며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있다.

□ 코로나 확산 차단과 함께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월 13일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주도정과 협의체를 연결하는 비상경제지원단도 가동 중이다.

□ 최근 들어 타 지역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는 PC방 등 집단감염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고강도 방역 특별관리에 돌입하기도 했다.

□ 제주도는 도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확산의 철저한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빈틈없는 차단방역과 대응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관련 문의: 도민안전실 양기정 재난대응과장 064) 710-3630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정인보 과장 064) 710-2910

※ 제주도 코로나19 주요 대응 상황 및 방역 조치 일지 (1.27~3.16)

일시	주진상황
1.27(월)	○도내 유증상자 첫 확인(음성)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도지사 직접 지휘하는 최상의 비상대책본부 체계로 ○도내 감염위기 대응 조정 '주의→심각'
1.29(수)	○제주도, 중국 무사증 제도 일시중지 요청 ○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 1차 정례브리핑 시작
1.30(목)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도지사 참석) - 국내선 발열감시 카메라 설치 정부 건의
2.01(토)	○제주 여행 후 귀국 중국인 관광객 확진 판정 관련 긴급 브리핑 및 후속 조치
2.02(일)	○원희룡 도지사, 정부 제주 무사증 일지 중지 발표에 담화문 발표 “뼈를 깎는 고통” ○공항만 도착장에 발열 감시카메라 설치
2.04(화)	○귀국 후 발열·확진 중국 관광객 접촉자 14명 집중관찰 대상자 지정 및 관리 ○도지사, 신종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 빅데이터 활용 촉구 정부 건의
2.05(수)	○지역사회 단체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운동 본격 ○민관 협업 기반 공항만 발열 감시시스템 구축
2.06(목)	○도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경제 비상사태' 선포 ○중국인 유학생 대상 특별수송 시작
2.10(월)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첫 분과회의 ○일본발 크루즈선 '웨스테르담'호, 제주기항 취소
2.11(화)	○제주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정부에 건의 검토 ○원희룡 지사, 경영안정자금 1조 8,215억원 조기 투입 지시
2.13(목)	○범도민위기 극복 협의체 출범식 및 공동결의문 발표 - 협의체 운영 전담 조직인 '비상경제지원단' 비상상황실 가동
2.18(화)	○코로나19 확진자 즉각 대응팀 구성 ○중국인 유학생 특별수송 3월 중순까지 연장 ○제주도, 정부에 제주공항 입주업체 임대료 감면 건의
2.19(수)	○국내선 공항 출발선 발열 검사 정부 건의
2.20(목)	○도내 첫 양성자(139번) 발생 및 역학조사·후속 조치 돌입 ○제주공항 도착장 2곳에 발열감시카메라 2대 추가 설치
2.21(금)	○01:30 도내 첫 확진자(139번) 정부 인정 ○도지사, 코로나19 제주 첫 확진자 발생에 따른 담화문 발표… 감염병 비상사태 선포
2.22(토)	○00:30 두번째 확진자(222번) 발생 및 역학조사·후속 조치 돌입
2.24(월)	○비상방위체계 발동 '바이러스와의 전쟁' 준전시체제로 돌입 ○어린이집 임시 전면 휴원 명령
2.25(화)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지정 운영계획 추진 ○위급상황 대비 소개 명령 시행
2.26(수)	○제주도, 신천지 교인 646명 명단 확보 및 전수조사 착수 ○제주도, 감염증 취약계층 지원 실행전략 수립
2.27(목)	○신천지 교육생 102명 명단 추가 확보 및 전수조사 착수
2.28(금)	○도지사, 경찰에 신천지 미연결자 16명 위치추적 요청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 코로나19 위기극복 호소문 발표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2.29(토)	○도내 신천지 관련자 748명 중 747명 소재 확인 ○공항·만 출·도착지 발열감시 카메라 신속 설치 정부 건의
3.1(일)	○도내 세 번째(4345번) 양성자 발생 및 역학조사·후속 조치 돌입
3.2(월)	○00:05 도내 세 번째 확진자(4345번) 확인 ○고위험군 시설 한시적 폐쇄 권고 및 집회 제한 요청
3.3(화)	○감염병관리기관 소개령 완료
3.4(수)	○01:30 도내 네 번째 확진자(5334번) 확인 및 역학조사·후속 조치 돌입
3.5(목)	○대구·경북발 입도객 긴급지원 전격 시행 ○제주 코로나19 안심존 지도서비스 제공 본격
3.7(토)	○두 번째 확진자(222번) 퇴원…도내 확진자 첫 완치 ○제주도, 국무총리 주재 영상회의서 “확진자 동선 공개 권한 시·도지사도 가져야” 건의

	○제주도, 경제위기극복 개선과제 19건 발굴해 정부 건의
3.9(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추진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멈춤' 캠페인 적극 동참 발표
3.10(화)	○구로구콜센터 확진자 1명 제주 방문 확인(동작구보건소) 및 역학조사·후속 조치 돌입
3.11(수)	○구로구콜센터 확진자 가족 제주 방문 확인(양천구보건소) 및 역학조사·후속 조치 돌입 ○원희룡 도지사 코로나19 확산방지 긴급 호소문 발표 “모든 도민 방역 주체 되어야”
3.12(목)	○0시 신천지 관련자 능동감시 해제 ○제주 다녀간 대구 확진자 확인…역학조사 돌입(접촉자 음성) ○원희룡 도지사 집단감염 발생위험 관리체계 구축 지시 ○원희룡 도지사 전국 공항 출발 전 발열검사 정부에 건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5곳 동참
3.13(금)	○일제 방역소독의 날 첫 실시…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등 1만9,330곳 참여
3.15(일)	○세번째 확진자(4345번) 퇴원…도내 확진자 두 번째 완치
3.16(월)	○0시 도내 확진자 관련 자가격리자 모두 해제…타 지역 확진자 접촉자 50명 남아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방역 지원활동 강화

- 도-지원단,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진료·이송·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이에 관련한 기술 지원 및 자문하는 공공보건의료의 싱크탱크다.
- 앞서 제주도는 지난 1월 1일 제주대학교병원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수탁 협약을 맺었다. 협약 기간은 3년이며, 박형근 단장(제주대의전원 교수)과 전문연구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 제주도는 타시·도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도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청 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임시사무실을 설치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감염병 대응 업무지원을 맡은 감염병관리지원단(단장 배종면·제주대의전원 교수)과 함께 도청에 상주하면서 도내 감염병 확산 차단 등의 지원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 특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코로나19 방역대책상황실 업무지원 △제주대학교병원·지방의료원 등 소개명령에 따른 운영기술 지원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기술 지원 역할 등을 수

행할 예정이다.

- 제주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진료·이송·민간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 관련 문의: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정인보 과장 064) 710-2910

휴원 학원·교습소,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숨통'

- 제주도,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원업종 한시적 추가... 4월부터 신청 접수 -

-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면서 휴원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학원과 교습소가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휴원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학원과 교습소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휴원 권고로 건물 임대료, 강사·직원 급여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교육서비스업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 도내 학원과 교습소는 대부분 생계형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정부 정책금융지원 대상 확대 발표 당시 지원 업종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도지회, 한국교습소총연합회 제주도지회 등과 면담을 갖고, 학원과 교습소를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 제주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용자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 용자 한도는 2,000만 원이며, 용자기간은 1년이다. 대출 금리의 2.1%(이차보전액)를 제주도가 지원하면 보증서 담보기준으로 수요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 한편 제주도내 운영 중인 학원·교습소는 총 1,534개소(학원 1,116, 교습소 418 / ' 19.12.31 기준)다.

※ 관련 문의: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김희옥 경영기술지원팀장 064) 710-2636

제주지역 감염병 대응 전문 의료인프라 대폭 확충

- 제주도, 한라병원·제주대병원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예정 -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을 코로나19 중증 응급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의심환자를 진료할 별도의 격리 진료구역 등을 갖춘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을 통해 중증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집중 치료가 가능하고, 응급실 내 감염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대응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계획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제주한라병원과 지역응급 의료센터인 제주대학교병원을 중증응급진료센터 후보지로 선정했다.
- 제주도는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기준을 토대로 최종 확인을 거쳐 이번 주 중 공식 확정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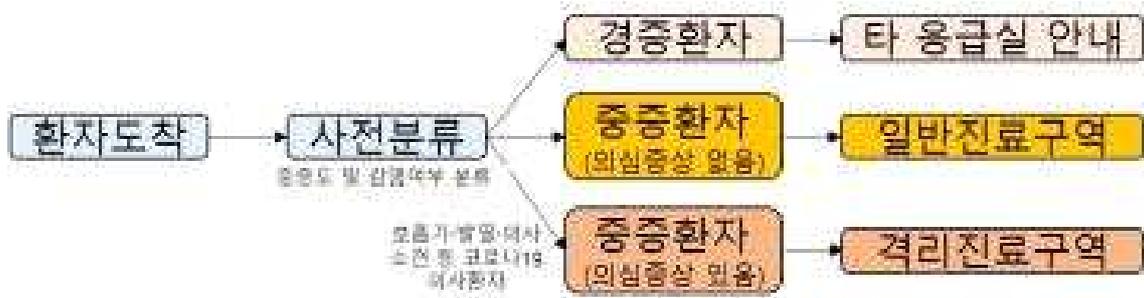
<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기준(안) >

- (대상) 상급응급실* 중 시·도별 2개 이상(필수)
 - *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 (필수 시설) ① 격리진료구역* (5병상 이상) ② 응급실 진입 전(前) 「사전환자분류소」
 - * 격리(음압, 일반)병상, 보호자대기실,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응급실 내·외부 병상 등 개조·활용
 - * 격리진료구역 내 1인 분리 격리(투명 재질 격벽 설치, 개별 CCTV 설치 시 불투명 가능)

출처 : 코로나19 대응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운영 계획, 보건복지부

□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사전 분류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감염 여부를 판단하고, 의심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중증환자는 별도의 ‘격리진료구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 다만, 센터는 중증환자를 위한 집중 진료시설인 만큼 경증환자로 분류될 경우 가급적 타 응급 의료기관으로 안내된다.



출처 : 코로나19 대응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운영 계획, 보건복지부

○ 지정이 추진 중인 2개 병원에는 사전 환자분류소와 함께 격리진료구역(총 10병상)이 마련된다.

□ 제주도는 중증응급진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진 대상 개인 보호장구 우선 지급 ▲격리진료구역 등 시설 설치비 및 이동식 X-Ray 등 장비 구입비 지원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도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환자의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이송체계 구축* 등 중증응급진료센터 가동에 따른 후속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 중증환자는 중증응급진료센터, 경증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이송

□ 한편, 제주도는 오늘(17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을 담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주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함에 따라 제주와 인천 권역 예산이 다시 반영된 결과이다.

* (당초) 2개 권역 45억 원 → (현재) 영남, 중부, 인천, 제주 4개 권역 120억 원

○ 이에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16일 제주가 세계적 관광지이자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 제주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우선 설립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 감염병 전문병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음압 격리병상 등 전문장비를 바탕으로 평시에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검사,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을 담당하며, 대규모 환자 발생 시 해당 권역 내 의료자원 동원과 진료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제주도는 추경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 계획을 진행할 방침이다.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정인보 과장 064) 710-2910

< 코로나19 관련 도내 의료기관 현황(20.3.17. 기준) >

의료기관	기능 및 역할	지정현황
1.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환자 최초 인지 시, 도 보건당국 보고 및 검체 채취 - 확진판정 시 접촉자 관련 역학조사 -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 및 모니터링 등 관리 	도내 6개소 (제주시, 제주시 동·서부, 서귀포, 서귀포 동·서부)
2. 선별진료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 내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증상자가 의료시설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도록 함 	도내 7개소 (제주대학교 제주한라·한마음 한국·중앙 병원, 서귀포의료원, 서귀포 열린병원)
3. 국민안심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 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 진료하는 병원 - A유형 : 호흡기 외래구역 동선 분리 운영 - B유형 :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 운영 	도내 4개소 (한마음병원, 중앙병원(A유형)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B유형))
4. 감염병 전담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확진환자 발생 대비, 일반병상과 음압병상 등을 갖추어 중등도* 환자를 치료하는 시설 * 중등도 : 중증은 아니나, 치료가 필요한 확진환자 	도내 3개소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소개병상 370개 확보
5.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압시설 및 적절한 오염제거 공간 등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병 관리시설을 갖춘 감염병 관리기관 	도내 1개소 (제주대학교병원)
6. 중증응급진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미수용 사례 방지를 위한 중증 응급환자 책임 진료기관 - ‘사전환자 분류소’에서 중증도·감염 여부를 분류하며, 코로나 확진·의심(발열, 호흡기 증상 등) 중증응급환자는 별도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제공 	도내 2개소 (제주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 이번주 지정예정
7. 감염병 전문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시에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검사, 감염병 대응·교육 훈련, 대규모 환자 발생 시 권역 내 의료자원 동원 및 진료를 지원하는 시설 	미정

공직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솔선수범

- 제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복무관리지침 마련... 위생수칙 철저 준수 -

-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직 사회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외출 자제, 모임·행사 연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소통,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 특히 오늘(17일)부터 공직자 점심시간을 3교대*로 분산 운영하는데 이어 구내식당 식탁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 18일부터 직원들 간 비대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 3교대 : (1조)11:30~12:30 (2조)12:00~13:00 (3조)12:30~13:30

- 점심시간 3교대는 도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사업소, 합 의제기관, 행정시도 참여하고 있다.

- 또한, 제주도는 회의와 접촉, 공간, 행사, 시설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청사 내 사회적 거리두기도 병행하고 있다.
 - 청사 내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보면 회의는 가급적 대면회의를 지양해 영상회의로 전환하고, 동료 및 방문객과의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를 권유하고 있다.

 - 집단 행사와 소규모 모임, 출장 등은 연기 또는 취소 방침을 유지하고, 엘리베이터·화장실 등 공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을 강조하고 있다.

- 복사기·전화기 등의 버튼은 소독하고, 공용물품 이용 시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 한편 제주도는 도민사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 제주도는 지난 16일 라디오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자발적 실천을 도모하는 공익 광고를 송출한데 이어, 오는 19일부터 TV를 통해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만남 자제에 대한 캠페인을 홍보한다.
- 앞으로는 마을 방송시설을 활용해 하루 2회 이상 개인위생수칙 안내와 모임 자제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 또,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 관련 문의: 총무과 송종식 총무과장 064) 710-6440
도민안전실 양기정 재난대응과장 064) 710-3630

- <참고>
1. 감염병 예방수칙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6. <일반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착용방법
 8.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9.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 1 손바닥 (Palm to palm)
- 2 손등 (Back of hand to palm)
- 3 손가락 사이 (Between fingers)
- 4 두 손 모아 (Interlocking fingers)
- 5 엄지 손가락 (Thumb rotation)
- 6 손톱 밑 (Under nails)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 1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Use tissue or handkerchief)
- 2 옷 소매로 가리기 (Cover with elbow)
- 3 기침 후 비누로 손씻기 (Wash hands with soap after coughing)

발행일 2019.11.5.

참고 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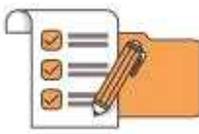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가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홈페이지 ncov.molhw.go.kr](http://ncov.mol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25

참고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꼭! 기억해야 할 의료기관수칙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문진 시



환자의 해외여행력,
의심환자 접촉력 등 반드시 확인

조사대상 유증상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

의심환자 발생 시



STEP1 선제적 격리

STEP2 코로나19 검사 실시

* 관할 보건소 신고 필수

!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자 진료구역 및 진료절차 구분하여 운영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http://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21


2020.3.2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2항 제 2호에 따라 격리장소에 입소하여야 하며, 격리장소(격리시설)에 입소하여야 합니다.
-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남문 재 방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기정물 소독제로 소독하기)
-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최소 2m이상 거리 두기
-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세척하여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 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신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 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피로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스트레스

건강하게 극복하세요!

2020.3.6. 1/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때문에 생겨난 감염병 스트레스

입원 치료 및 격리 과정, 감염병 위험에 노출됨으로 인해 발생한 감염병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불안과 공포가 커져요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의심이 많아져 사람들을 경계해요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져요

2020.3.6. 2/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지원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확진자와 그 가족, 격리 경험자 등의 심리적인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돕습니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 관련 정보와 심리자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감염 확진자 및 가족, 격리자 등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광역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는 우선 전화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평가를 시행하고 고위험군 선별 및 치료 연계

2020.3.6. 3/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 1**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기**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해요.
- 2** **정신건강 전문가 도움받기**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힘든 감정 털어내기**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어보세요.
- 4** **자신의 몸과 마음 돌보기**
충분한 수면, 운동, 건강한 식사 등으로 정신건강을 지켜요.

2020.3.6. 4/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 5**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관심 기울이기**
어린이 수준에 맞추어 감염병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6** **격리된 환자 및 가족의 불안감 스트레스 도와주기**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혹은 그 가족들의 힘든 감정을 함께 나누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세요.
- 7** **의료인과 방역요원 응원하기**
감염병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2020.3.6. 5/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코로나19로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위기상담전화

	확진자 및 가족 02-2204-0001~2 (국가트라우마센터) 055-520-2777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격리자 및 일반인 1577-0199 (정신건강복지센터)	
--	--	--	--

누리집

국가트라우마센터 | <https://nct.go.kr>
질병관리본부 | <http://www.cdc.go.kr>

2020.3.6. 6/6

2020.3.7.

코로나19통합심리지원단

감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통합심리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근거림이 있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불안하고
쉽게 놀라게 돼요



화가 나고
짜증이 많아졌어요



원치 않는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집중하기 어려워요



멍하고
혼란스러워요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감염병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한 대응지침을 확인하세요!

만약, 위와 같은 반응이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확진자 및 가족

02-2204-0001-2 (국가트라우마센터)

격리자 및 일반인

1577-0199 (정신건강복지센터)

055-520-2777 (영남권국가트라우마센터)



발행일 : 2020.2.27.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 3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 4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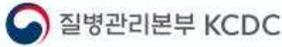
접이형 제품 착용법

- 1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 2 고정상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 3 머리끈을 귀에 걸쳐 위치를 고정해주세요
- 4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5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컵형 제품 착용법

- 1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주세요
- 2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주세요
- 3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 4 아래 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쳐 고정합니다
- 5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6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당신의 여행력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말해주세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



* 해외여행력이란?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



우) 04520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13층 / 전화 02)734-9321~3 전송 02)738-1003 / www.journalist.or.kr

코로나19 보도 준칙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의견을 드린바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 (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

② (재난 등 취재) 기사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병원 등 취재) 기사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사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

⑥ (재난보도)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